음악 공부 기록

1. 음정의 개요

음정interval이란 두 음 간의 높이 간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도’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1. 도, 미 : 3도 3interval
2. 레, 솔 : 4도 4interval
3. 파, 파 : 1도 1interval

//건반에서 어디에 위치한 ‘도’, 혹은 ‘미’나 ‘파’, ‘솔’이냐에 따라 interval은 달라지겠다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두 음이라 가정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음의 높이의 차가 얼마인지 말할 수 있다. 정말 그런가?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자, “레, 미”와 “미, 파”는 정말 같은 간격인가? 레와 미 사이에는 검은건반이 있지만, 미와 파 사이에는 없다. 검은 건반이란 무엇인가?

1. 반음과 온음 semitone and whole tone

검은건반의 역할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반음”이다. 레와 미, 미와 파 둘 모두 2도의 간격을 갖지만, 레와 미에는 하나의 검은 건반(반음)이 존재하지만, 미와 파 사이에는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두 음의 간격이 n도라고 하면 두 음의 높이 차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오해하면 안될 것이 있다. 통상 “어떤 음정 안에 반음이 있냐”는 표현은 피아노로 따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음 사이의 검은건반이 없는 것이 있느냐”란 표현과 동치이다. 즉, 레, 미는 2도이고 반음이 없다라고 하고, 미, 파는 2도이고, 반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고로 온음은 반음의 2배를 온음이라고 한다.

1. 온음계적 음정 diatonic interval

온음계적 음정은 피아노로 따졌을 때, 흰 건반 사이에서 음정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음정에 관한 설명을 기억하는가? 같은 음, 예를 들어 솔, 솔은 1도이다. 반면, 다른 음, 레, 파는 3도이다. 이 음정의 크기와 반음(미-파, 시-도)의 개수에 따라 우리는 온음계적 음정을 구분을 생성할 수 있다.

먼저 음정의 크기에 따라 구분 후 그 음정에서 반음의 개수에 따라 나누어진다.

1. 음정이 1, 4, 5, 8도 인 경우
   1. 1도, 반음 0개 : 완전음정 perfect interval,
   2. 4도, 반음 0개 : 증음정 augmented interval,
   3. 4도, 반음 1개 : 완전음정
   4. 5도, 반음 1개 : 완전음정
   5. 5도, 반음 2개 : 감음정 diminished interval,
   6. 8도, 반음 2개 : 완전음정

만약, 레, 솔이면 4도이고, 반음이 1개 있으므로 완전4도이다.

1. 음정이 2, 3, 6, 7도 인 경우
   1. 2도, 반음 0개 : 장음정 major interval,
   2. 2도, 반음 1개 : 단음정 minor interval,
   3. 3도, 반음 0개 : 장음정
   4. 3도, 반음 1개 : 단음정
   5. 6도, 반음 1개 : 장음정
   6. 6도, 반음 2개 : 단음정
   7. 7도. 반음 1개 : 장음정
   8. 7도, 반음 2개 : 단음정

만약, 레, 파이면 3도이고, 반음이 1개 있으므로 단3도이다.

1. 샾(#)과 플랫(b), 조표와 임시표 key signature and accidentals

‘#’의 의미는 “해당음을 반음 올리다” 이다.

‘b’의 의미는 “해당음을 반음 내리다” 이다.

조표에서 #과 b은 역순으로 의미를 가진다.

* <-----------------------#
* 시 미 라 레 솔 도 파
* b----------------------->

조표는 음악의 조key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조표에 있는 #과 b은 그 악보 전체에서 영향을 미친다.

임시표는 조표와 같은 기호에 ♮ 내추럴이라는 기호를 추가로 사용한다. #과 b의 의미는 동일하고, ♮의 의미는 조표나 임시표로 변형된 음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조표는 악보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한 편, 임시표는 한 마디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 장단조와 으뜸음 major key, minor key and tonic

//이것은 흐름과 상관없이 별도로 넣은 항목입니다.//

장조는 기본적으로 밝은 느낌, 단조는 어두운 느낌을 가진다. 으뜸음이란 각 조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음을 말한다. 장조와 단조를 악보 만으로 명확히 알 수 는 없다. 다만, 조표와 다른 항목을 참고하여 추론할 수 있다.